

사학과학서점 압수 수색

합법도 장소에 따라 불법(?)

정권 총체적 위기 속 진보세력 탄압의도

지난 달 15일(화) 오후 12시 30분경 서울대 앞 학과대학서점 '그날이 오면', 고려대 앞 사회과학서점 '경찰서원', 성균관대 앞 사회과학서점 '무도'에 각각 사복장을 15여명이 들어온다며 입수수령장과 구속영장을 제시하면서 책을 압수하고 서점원들에게 경찰청 대공분실에 있으며 이를 종수경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고대앞 장백서원 주인인 김용신씨의 경우 경찰 축은 구속사유로 "...서점을 개설, 일반 학생대중에게 좌익학제적 활동을 확장시킨다는 범증 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이 배우자 이후 공범자들과 통모,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될 필요성이 있음"으로 밝혔다.

경찰에 의해 압수된 서적들을 살펴보면, 타 대학 경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강의교재로 쓰이고 있는 『경상학사론(동아사간)』, 『마르크스의 혁명력 사상(캘리나코스)』, 『일반서점에서도 팔리고 있는』 「역사는 없는가(승두율, 당시), 「나시쓰는 한국현대사(마녀길, 블베개)」, 「집권기 협정을 위한 사회과학서점들은 집권의 탄압과 자신의 공세속에서 대학인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하 기자

판, 정치사상의 자유가 심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대석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인문사회과학출판영업자협회, 서울출판노동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번 사건은 문민정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문화에 대한 폭넓은 탄압"이라며 "경찰청 대공분실에 있으며 이를 종수경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고대앞 장백서원 주인인 김용신씨의 경우 경찰 축은 구속사유로 "...서점을 개설, 일반 학생대중에게 좌익학제적 활동을 확장시킨다는 범증 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이 배우자 이후 공범자들과 통모,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될 필요성이 있음"으로 밝혔다.



김길설에서 교재로 쓰이던 책들, 일관서점에서도 벗어나는 책들이 사회과학서점에서는 이전표현을 더 되어난 대학가 상업화로 인한 기상상승, 민족사회과학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 속에서 한때 서점에선 50여개가 넘는 사회과학서점을 하나 둘 묻는 일이 찾아졌다. 이와 관련 장백서원에서 만난 고대 국어교과 97학번 한 학생은 "경강하고 일상적인 인문사회과학 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회과학서점들은 집권의 탄압과 자신의 공세속에서 대학인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하 기자

역사속으로 -86년 4월 전방입소반대투쟁

80년대 반미(反美) 운동,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발로

1986년 4월 28일, 아침 9시경 약 4백여명의 서울대 85학번 학생들이 신림사거리 기아쇼핑센터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연학농성을 벌였다. 그 날은 3층 건물 옥상에서는 김세진 당시 서울대 자연대 자연생화회(생화회), 차재호 당시 반전 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회(평화회)가 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굳이 출동한 폭력경찰들은 연좌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문화원집거투쟁 이후 학생들의 생각은 급속한 변화를 거쳐게 되었다. 요컨대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미국의 지배를 극복하는 것은 단연 군부독재의 청산을 위한 보조국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시대에 경합해 이할 핵심적 과제로서 떠오르게 되었다.

이제 한 학생들은 신나는 은둔을 온몸을 통해 경험하거나 학생들을 연행하고 건물 옥상으로 몰려 올라왔다. 이어 두 열사가 즉시 자신들 위에 불을 던졌다. 은둔이 화염에 휩싸인 고을 속에서도 두 열사가 두손을 불끈 쥐고 함께 외친 구호는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민족생존 위협하는 학우기 를 철수하라!', '반미주주회 반파소민주화투쟁 반세'였다.

최근 대학주체 상황으로 인한 자가상승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 속에서 한 때 서울에선 50여개가 넘는 사회과학서점을 하나 둘 묻는 일이 찾아졌다. 이와 관련 장백서원에서 만난 고대 국어교과 97학번 한 학생은 "경강하고 일상적인 인문사회과학 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회과학서점들은 집권의 탄압과 자신의 공세속에서 대학인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하 기자

우리 사회의 반미주주화운동은 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 빠이픈 경합으로부터 출발했다.

광주항쟁 진압작전은 1980년 5월 26일, 광주의 '민주화 투쟁 대학생 대책본부'는 미방한원 2

대를 광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기습방송을 통해 미국의 지배를 극복하는 것을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국의 지배를 청산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걸트를 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사건은 농민을 비롯한 여러 계층의 광범한 수

그리고 도시에서 경박화를 벌였던 86년 4월. 이

제호, 김세진 당시의 본신이란은 각계민족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미국의 한반도 경제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국의 지배를 청산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걸트를 하게 만들었다.

80년대 반미운동의 첫단계인 80, 82년의 두 방화투쟁은 미국을 경쟁하기 위해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경상성이 높은 미문화

원을 공격하고로써 반미운동의 초기화를 시작했다.

이어 82년의 레이건 방한 반대투쟁과 85년의 진주항쟁, 86년의 진주항쟁과 87년의 진주항쟁 등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반미운동으로서 힘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계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반미주주화운동이 동일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운동, 비미국 운동권의 반미운동은 반제국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종교, 시민단체들의 반미론은 이는 모두를 단군의

책임자로 인식하고 이를 풍

통의 극복대상으로 규정했던

점에서 막연한 반미론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일반대중의 반미론은 아직 총

체적인 인식거리보다는 미

국의 경제부록, 독재정권지원 등에 대한 이슈별 분별적인 반미론이다.

여하튼 열사들의 뜨거운 의

심이 있었던 86년 이후부터

반미주주화투쟁은 남한사회의

행동 속에서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의 투쟁은 민족주주를 기

본으로 하는 민족민족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80년 5월 초 '미제축출'을 의지해 서울대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한 이동수군, 이재호, 김세진 당시에 이어 세번째 반미주주화 투쟁으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박노라 기자

학술 단신

아사연, 경제학포럼 개최

현 시기 경제난국 경제 회생 모색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아시연)은 5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한국경제 회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20회 경제학생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아시연 원장인 이장원(교복 법학과교수)은 "최근 한보사 대에 이후 우리 국민들은 배신감과 불안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뿐 아니라 높은 물가와 고소비, 관공들의 무사임금화 행정과 보신, 그리고 경제의 부정부패로 인해 믿고 있다"며 "이번 학술포럼은 경제난국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우리 국민들과 경제인たち에게 경제의지를 회생시키려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1주제로 경제의지 회생을 위한 경

책적 방안에 대해, 2주제로는 경제의지 회생을 위한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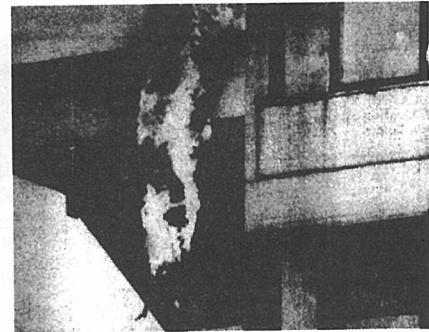
물경제적 방안에 대해, 3주제로는 경제의지 회생의식자원이 종합토론을 벌이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사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제2주제
사회: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이영주 (제이슨단 대표이사)



80년 5월 초 '미제축출'을 의지해 서울대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한 이동수군, 이재호, 김세진 당시에 이어 세번째 반미주주화 투쟁으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박노라 기자



주한미군과 양립할 수 없는 한반도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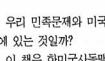
평화통일 이야기

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 북한 내륙 대상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합동훈련인 포커스랜즈 훈련, 한·남 학생들을 침략하고 한국과 캐나다 등과 해군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군적 군을 구성하여 점령당한 남한을 탈환하는 시나리오의 팀파운틴, 유사시 적 후방·심장대에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강행해서 적의 전쟁지도체계와 전쟁수행능력을 미화시킨다는 목적이 목수리 훈련 등을 살펴보면 서 복을 항상 전시비상사태를 끌어넣으므로 한반도 경제를 긴장시키는 미국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철저하게 자신의 국익에 기초해온 미국의 군사전략은 변화 과정과 주한미군의 문제, 정전체제와 평화체제의 역사적인 과정과 국제적인 사례를 분석하면서 평화체제 수립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왜 통일은 남북민의 문제가 될 수 없는가? 이 책은 방대한 자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서술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에 있어 미국은 어떤 존재인지 평가한다. 이책은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의 주범이며 우리 민족 통일의 경애를 뿐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노라 기자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m>

YS 死년과 反 교육개혁 - ① 1차 교육개혁안



철학의 빈곤이 부른 '4년지대계' 용 교육개혁안

'시장'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종평·학부제 실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평균 1년 내로 끝나야 한다는 철학을 통해 정의와 비둘 때마다 어김없이 변신했다.

'교육대통령'이라 표방했던 김영삼정부도 개혁의 예스를 제일 먼저 '교육'에 들었다. 그에게 95년 5월 31일 '1차 교육개혁안'이 탄생했다. 8월 30일에는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 7월 9일에는 '2차 교육개혁안'이, 8월 20일에는 '3차 교육개혁안'이 선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안은 일표피자마자 언론의 회의적 미묘여러구는 상황으로부터 교육현장 어

기자기에서 '개혁'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르는 계획'이요, '세계화(世界화)' 아닌 '세계화(世界下)'에 다름이 아니라 비판이 되어버렸다.

김영삼 정권 8년동안에 펼쳐온 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고생. 끝난 YS조회(집)의 죽스리가 힘을 더해가고 있는 5월에는 4세에 걸쳐 '교육대통령'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3차의 교육개혁안과 1세기째 교육부문의 청기구상'을 통해 알아보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95년 5월 31일 발표된 1차 교육개혁안의 철학적 원리와 그 속에서 파생된 대학정책을 문제점을 고찰한다.

편집자

잘못 설정된 '교육개혁의 기본원리'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안이 과정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개혁안 수립과정에서 첫 단추인 '교육개혁의 기본원리'부터 잘못 설정했기 때문



이다. '철학의 빈곤'이 낳은 팔연적 결과인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가 내놓은 5·31 교육개혁안의 철학적 원리는 '시장'·'경쟁'·'수월성'으로 정의된다. 교육은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될 수 없으며, 공급자는 독점적 자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경쟁'과 '수월성'의 원리로도 영향을 미친 공급자와 경쟁과 수요자와 수월성이 아니라 수요자와 경쟁과 공급자의 수월성을 바탕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5·31 교육개혁안의 철학적 원리인 '시장'·'경쟁'·'수월성'의 원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시장교육'과 이 처음으로 주창된 미국에서조차 전국적인 규모의 교육단체들이 '시장

· 경쟁'이라는 교육이론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공급자와 수요자

와 관계로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기꺼이 서로 다른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교육설립 준칙주의, 자립형 사립학교제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 복수지

원 후주체 등이 이 원리에 기초한 대표적인 방안들이다.

또 '교육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서 교육수요자들이 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진 소규모로 특성화된 다양한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에 '시장'의 원

리가 녹아든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정의이다.

이는 기존의 인·허가제와 달리 민관 학교를 설립·폐지 나중에 조건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되는 신고제 협약이라는 점에서 무언가 학교의

경쟁과 협력과도 같은 형태로 기관화가 지나치

게 세분화되어 있어 양쪽으로 보이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편'·'수월'·'잘가기'에 초점이

맞춰져온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은 각 대학의

자체 실정되어야 하며, 양적측면보다는 질적측면

면에 우선순위가 놓여야 함에 일컬어진 평가

기준으로 그 발전성이 이 회의화된다. 이는 대학의 대

학발전계획이 '비종

수필 - 이북동포를 생각하며

죽을 먹어도 함께 살자

이북과 서신연락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해, 온 들판이 화로가 들어 보리가 벌겋게 말죽이 버렸다. 보리고개를 넘기고 있던 사람들은 망연자실 냄을 일고 말았다. 기다리던 보리가 이시아 폐기로 전에 말라 죽어버렸으니 그 정황이 이해되었겠는가?

보리를 한 끼 먹지 못했던 그해, 이곳 안동지방에서만 굶어죽는 사람이 있었다. 먹을 것이 있었던 걸은 도무지 먹을 기회가 없었다.

밤낮으로 거지가 물려드니 밥을 짜 수도 차는 밥도 맛있고 앉아 먹을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한밤중에도 밥을 짜어 달아 짖어놓고 숨어서 먹고 있으면, 어느새 느닷없이 나타난 거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밥그릇째 빼앗아 달아났다.

심지어는 입 안에 든 음식도 때귀를 내리치고는 뛰어나온 뱃이 먹는 걸 절박했다.

돌이기신 박설이르신네가 돌아온 보리총년 때의 이야기는 들키만 해도 무서웠다.

“...그간 윗산 애증과 기무담엔 밭다닐 틈도 없이 얘기까지 죽어갔다.”

어르신네는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는데, 어려움을 진수로 할머니가 들려온 또 다른 이야기는 이어지는 더 끊겨졌다. 진수네 할머니가 열여섯살에 시집와서 이듬해였으니 지금부터 70년이 됐다. 이곳 중앙고속도로 남안동 불계리로 이어지는 진로로 중간쯤 수제개풀이란 꽃짜기 건너편이다. 날렵한 봉丹건너 구릉지 밭에서 헛번이 잘 드는 양지밭에서 다른 어느 밭보다 빨리 이어졌다. 여기 보리알이 누릇누롯 잎이 들 무렵, 어디선지 수많은 거제떼가 물려왔다. 굶어난 사람들은 거제겁 보리이상을 때리는 신들진단 것처럼 비벼 먹었다. 그러나 빅 예술 날보리를, 그것도 겹겹게 먹은 사람들은 빠를 움켜잡고 하나 하나 나뒹굴었다. 누가 이렇게 손을 볼 사도 없이 걸보리에 체한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렸다.

할머니 말씀은 “서백명이 넘었으구만” 하셨다.

순식간에 보리밭에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쌓였다. 극히 미을 사람들은 거사시체를 끌어가거나 여기저기 산비탈에 묻었지만 대부분 시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했다.

“꽃에 동안 거제 농사는 못지었지.”

병자년 물난리가 나던 해는 처녀들이 일본으로 반주로 팔려갔다고 했다.

대호니 할머니 세 살 때 다섯 살 된 오빠의 남매를 남겨놓은 어머니가 돌아가자 아버지는 서둘러도 떠나왔다. 남매는 의견과 대불같이 이를 하다가 다섯 살 때 솔드롭에서 숲지개미를 함께 풀려져온 오빠는 누군가가 배리고 있다.

할머니는 제작년에야, “글쎄 내 성(姓)이 권가가 아니고 김기린다” 하셨다. 칠십 환경을 위하

는 곳에 우리는 50년이 넘도록 서로의 소식도 모르고 살았다.

대체 어떻게 해야만 될까?

아직도 장벽은 두껍게 막혀 있고 전화도 안 통하고 편지도 못한다.

제발 담장 통일은 못하더라도 서신연락이리도

주고 받게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얼마간 추첨

한 카페리리 풀이 돌아죽는 통로에게 밀가

루라도 강생이라도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것으로 조금씩만 나눠 보내면 올

여행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 한끼씩 죽을 주어 먹거리로 한종씩의 밥

모아 앞으로 개월만 함께 고생을 하자. 비록

얼굴은 마주 보지도 못해도 함께 나눠 준 살과 밀

기루로 우리는 한 겨레 한 동포라는 걸 확인하면서 살자.

그래도 이 땅에 다시는 한스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자.

권정생

<녹색운동>

사진
수필

“아빠! 저 사람들은 뜫된 사람들이야!” “음.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경찰아저씨들이 왜 나쁜 건데?” “그건 크면 알게 될 거야.” 사진 속의 고마와 노동자인 아빠가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도 고마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못하다니라는 표정입니다. 날씨가 회창했던 이 날 사람들은 모두 둘러 있었고 아이와 함께 온 아버지도 많아 과학함이 이런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경들이 행사 진행을 막고 최루탄을 쏘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학살당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예상 경찰들이 어린이에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 지난 5월 1일(목) 노동절 행사는 일련 충장단공원에서 -

김혁경 기자

의사소통 구조를 바꾸자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술에 대한 단상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지만, 대학문화의 모든 길이 단지 ‘술’로 통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술’ 들어가야 마음 속 깊숙했던 진심의 말이 나오고, 술이 들어가야 서로에 대한 가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편하게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열정이 이 술 소비장을 놀란다는 말에 잠시 물상을 짜는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의 외국인 술문화에 대한 단순한 평계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설립될 수 있다.

대학인들은 그동안 수동에 대화를 시도해왔다. 시장광고 아래에서 대학인들은 그들과 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술은 그 담합함을 푸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들이 이해한 역사적인 대화의 폐쇄성은 대학문화에 있어 대화의 폐쇄성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술’문화의 바탕에 같은 것이다.

그런 지난 날들은 다른 현재에도 ‘술’의 의미는 지속된다. 고등학교 교육의 폐쇄성이 그것이다. 그들이 가지는 의사소통 구조는 일방적이며 학생들에게 생활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술에서 조차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세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형화된 형식과 내용을 외어

서 쓴다. 수많은 저작은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동성에 의해 받아들이는 대화이며 된다. 또한, 그들은 저지른 구역이 있다. 그것이 바로 비상년자 출입금지 구역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소외시킨다. 만약 그들이 고양한 금지를 거부한다면(하나님의 의사소통으로)은 사회의 비난을 받는다.

이러한 현 사회 문화는 이들이 대화하는 곳에서 행할 필요는 없는 자본스레 보여준다. 그것은 유행의 혼수공간으로서 ‘술’을 심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술은 이제 글이 아니라, 자연스런 하나님의 저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대의 문화의 발전과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독특한 의사소통의 ‘술’ 문화를 만들어낸다. 무선전화기, 무선인터넷,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은 대학 의사소통 구조를 일방적인 비단으로 의사소통 구조로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현 세대에 있어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제 대학의 ‘술’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수동적인 의사소통의 폐쇄성을 감습하지 말고, 담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 술이라는 문화를 만들어온 자유주의 토론의 장이 열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술자리에서 선배에게 술을 안방하는 후배에게 눈치를 줄 것이며, 언제까지 술 못마신다고 못먹는다고 선배나 동기들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인가. 이제 술을 버리자. 마지막 짐승은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술문화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술은 의사소통의 폐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학생들이 만드는 대학문화에 대한 것이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놀자마자 되는가

놀이를 즐기는 우리의 민족은 언제나 놀 수 있었다. 적격한 날마다 시 한 수를 읊었고, 벼를 심으면서도 노래를 불러 일을 놀리고 만들었

장운식

<사회·신방 3>

민족학회와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동포돕기 5.11

겨레사랑한나가당

-사상과 이념을 떠나 수해와 불체경계로 고통받는 내 동포를 돋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 저것 조건을 달아 동포 돋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반인륜적이며 반통일적입니다
-5.11 겨레사랑한나당은 온 국민이 통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전설로 민족·평화·통일을 위해 나서는 자리입니다
-5.11 겨레사랑한나당의 1만원짜리 입장권을 사시면 우리 동포 3달치 기꺼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11 일 전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겨레사랑 실천도금 활동의 전국적인 성과를 한 데 모으는 자리입니다
-거리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전국연합 소속 회원들을 만나시면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주시고 한마당 식권(입장권)을 사 주십시오
-소중한 친구, 애인, 가족, 동료, 친지들과 따뜻한 동포애를 나누고 겨레사랑한나당에 손 잡고 오십시오
-행사에는 수도권 각 지역(서울, 인천·수원, 성남·부천, 안양 등)의 청년학생, 노동자, 시민들의 따뜻한 동포애가 담긴 문화 공연과 가수 송시현, 김영남, 국단 ‘금강’ 노래극단 ‘희망재’ 등이 함께 하며 1만 팬케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 친선놀이가 겨레사랑의 밤을 수놓을 것입니다

⑧ 일시-1997년 5월 11일(일) 오후 5시 ⑧ 장소-한국대학교 대운동장

⑧ 문의-대표전화 02)922-4765/4766

서울-762/4048 수원-033-46/9187 양주-0342-41/2254 원천-032-874/5431 부천-032-655/6202
연산-0345-492/5296 애남-광주-0347-795-5518 양양-0343-55/7849 울산-035-36/0150

주최-민족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한국대학교 총학생회

주관-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

수도권 각 지역연합(서울연합·인천연합·경기남부연합·부천연합)

김경천 고문수사 인기부원 청탁과 인기부원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후원-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 한겨레 신문사, 월간[일]

서울은행 19104-2396203 이장복
우체국 013060-0084510 박용길
지로 7624845 이장복(모든행 입금 가능)

